Symphony No. 4 in F minor, Op. 36

- □□

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4 in F minor, Op. 36
작곡가: Peter Ilyich Tchaikovsky (1840–1893)
작곡 시기: 1877년에 스케치를 진행하고 1878년 1월 초 관현악 총보를 완성했다.
초연: 1878년 2월 22일 (러시아 구력 2월 10일), 모스크바 러시아음악협회 열 번째 연주회, Nikolay Rubinstein 지휘
장르와 범위: 관현악을 위한 네 악장 교향곡 전곡

IMSLP: Symphony No.4, Op.36

Wikipedia: Symphony No. 4 (Tchaikovsky)

Peter Ilyich Tchaikovsky의 Symphony No. 4 in F minor, Op. 36은 네 악장으로 이루어진 관현악
교향곡이다 . 첫 악장 Andante sostenuto — Moderato con anima 뒤에 노래풍의 Andantino in modo di canzona, 현악 피치카토를 앞세운 Scherzo. Pizzicato ostinato. Allegro, Finale. Allegro con fuoco가 차례로 놓인다. 작곡가는 1877년에 전곡의 윤곽을 잡고 이듬해 초 총보를 마쳤으며, 작품은 그해 2월 모스크바에서 초연됐다.

작곡가는 편지에서 첫 악장 도입부를 ‘운명 ’이라고 부르고 마지막 악장에서 그것이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출판된 표제나 악장마다 고정된 줄거리가 아니라, 초연 뒤 헌정 상대에게 보낸 사적인 해설에 담겨 있다. 둘째 악장의 독주 선율, 셋째 악장의 악기군 교대, 종악장의 민요는 그 해설을 따라가면서도 각각 고유한
음악적 진행을 이룬다.

스케치에서 첫 공연까지
Tchaikovsky는 1877년 5월 Nadezhda von Meck에게 겨울부터 새 교향곡을 쓰고 있다고 알렸다. 같은 달 중순에는 앞의 세 악장을 스케치했고 , 6월 초에는 종악장까지 전곡의 윤곽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관현악화는 8 월에 시작됐지만 첫 악장이 길고 복잡해 작업이 지연됐다. 남은 악장들은 연말 이탈리아에서 집중적으로
완성했다. 현존 총보의 첫 세 악장에는 Venice에서 적은 날짜가, 종악장 끝에는 San Remo의 1877년 12월 26일 /1878년 1월 7일이라는 날짜가 남아 있다. 이 이중 날짜는 당시 러시아에서 쓰던 구력과 서유럽의 신력을 나란히 나타낸다.

작곡가는 완성한 총보를 모스크바로 보냈고, Nikolay Rubinstein은 1878년 2월 러시아음악협회의 열 번째 연주회에서 지휘했다. Tchaikovsky Research는 이 초연을 성공적인 공연으로 기록한다. 그해 12월 Eduard Nápravník이 지휘한 Saint Petersburg 공연에서는 동생 Modest가 셋째 악장의 앙코르와 종악장 뒤의 큰 박수를 전했다. 작곡가도 이 소식을 받은 편지에서 앙코르를 성공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 작품이 다시 공연되는

과정에서 특히 스케르초가 관객의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낸 셈이다.

초기 반응에는 찬사만 있지 않았다. 제자이자 작곡가인 Sergey Taneyev는 악장의 일부를 발레 음악처럼 들었다고 평하고 이 교향곡의 표제성을 문제 삼았다. Tchaikovsky는 1878년 4월 답장에서 표제적인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을 말로 정확히 공식화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Beethoven의 교향곡 5번을 언급한 까닭도 선율을 빌렸다는 뜻이 아니라 교향곡을 움직이는 ‘근본 발상 ’을 본떴다는 뜻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는 음악의 진행을 설명할 언어가 필요하되, 편지의 문장을 곧 악보의 모든 음에 대응시킬 수는 없다는 당대의 논쟁을 보여 준다.

헌정 편지가 그려 준 네 악장
초연 뒤인 1878년 3월, Tchaikovsky는 von Meck에게 긴 편지를 보내 도입부를 행복을 가로막는 운명의 힘이라고 설명했다. 첫 악장의 다른 대목에는 잠시 나타나는 행복의 꿈을, 둘째 악장에는 혼자 있는 저녁에 떠오르는 기억을 연결했다. 셋째 악장에는 분명한 감정보다 잠들기 전 스쳐 가는 불연속적인 장면들을 배치했고, 종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축제에 들어갔을 때 다시 나타나는 운명을 이야기했다 .

편지의 마지막에는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문장이 나온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적은 설명이 모호하고 불완전하다고 덧붙였다. ‘운명 ’은 작곡가가 도입부와 그 귀환에 부여한 이미지지만 작품의 공식 부제는 아니다. 편지 끝의 삶에 대한 긍정과 도입부의 위협적인 귀환도 한 문장으로 합쳐지지 않는다.

출판 정보와 자료

총보는 현재 모스크바의 Russian National Museum of Music에 보관되어 있다. 네 악장 92장으로 된 자필 자료의 소장 번호는 Fonds 88, No. 58이다. 작품의 출판 과정에서는 작곡가가 악보를 직접 교정하려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는 1878년 4월 출판업자 Pyotr Jurgenson에게 자신의 최종 교정을 거치기 전에는 교향곡을 내지 말라고 요청했고, 예비 교정에는 Taneyev를 추천했다.

같은 편지에서 제목면의 헌정 문구도 직접 정했다. Dedicated to my best friend는 이름을 적지 않은 von Meck 헌정이다. 출판 경로를 보면 Jurgenson의 관현악 총보는 1879년에 광고됐고, Taneyev가 편곡한
피아노 네 손 판도 그 무렵 발행됐다. 관현악 파트보는 1888년에 광고됐다. 총보와 파트보가 각각 언제 유통되었는지 구분하면 초기 공연과 출판의 순서를 분명히 볼 수 있다. 뒤에는 Pavel Berlinsky가 편집한 1949년 구전집 총보도 나왔다.

소요 시간

전곡은 대체로 약 40–45분이다. Benjamin Zander와 Boston Philharmonic Orchestra의 2018년
실황에서는 첫 악장이 약 18분, 둘째 약 9분, 셋째 약 7분, 종악장 약 9분으로 진행된다. 이는 한 공연의 악장별 규모를 보여 주는 수치다. Manfred Honeck과 Pittsburgh Symphony Orchestra의 2016년 실황은 둘째 악장이 약 10분, 셋째가 약 6분으로 달라진다. 특히 스케르초의 빠르기 선택이 악장별 시간에 영향을 준다.

편성

기준 총보 계통의 편성은 Piccolo, Flutes 2, Oboes 2, Clarinets 2(in A, B-flat), Bassoons 2, Horns 4(in F), Trumpets 2(in F), Trombones 3, Tuba, Timpani 3, Triangle, Cymbals, Bass Drum, Violins I/II, Violas, Cellos, Double Basses다.

관현악의 모든 악기가 네 악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도입부의 관악은 교향곡의 출발을
규정하고, 셋째 악장에서는 현악 ·목관 ·금관을 서로 떼어 놓은 뒤 짧게 주고받게 한다. 종악장에는 앞
악장들에서 두드러지지 않던 Triangle, Cymbals, Bass Drum이 축제 장면의 움직임에 가세한다. 이런 차이는 악기 수의 변화가 아니라 동일한 편성을 악장마다 다르게 배치한 결과다.

네 악장의 진행

I. Andante sostenuto — Moderato con

anima (F minor)

관악이 제시하는 도입부는 작곡가가 von Meck에게 ‘운명 ’이라고 설명한 바로 그 대목이다. 뒤이어 본부가 Moderato con anima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왈츠의 움직임을 지닌 첫 주제가 나온다. Berliner Philharmoniker의 작품 해설은 이 하강하는 선율의 반복과 악센트가 안정된 춤의 느낌을 계속
흐트러뜨린다고 짚는다. 이어 나타나는 목관 선율과 현악의 여린 음향은 편지에서 말한 ‘꿈 ’의 장면과 연결된다
. 도입부의 금관 신호가 다시 울릴 때 그 흐름은 중단된다.

첫 악장은 네 악장 가운데 가장 길다. Tchaikovsky는 관현악화 과정에서 이 악장이 유독 길고 복잡하다고 von Meck에게 알렸고, 음악도 도입부의 귀환과 서로 다른 빠르기의 구간을 거치며 크게 전개된다. 이 악장의
규모를 단순한 느린 서주와 빠른 본부의 대비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훗날 지휘자 Honeck은 2020년 음반 해설에서 89마디의 강주를 잠깐 누그러뜨린 뒤 91마디의 다시 적힌 fortissimo를 새 충격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악보에 없는 그 음량 변화는 같은 큰 소리를 유지하는 연주와 다른 긴장 곡선을 만든다. 그는 237 마디에서 시작하는 긴 악구도 기보보다 여리게 출발시켜 차츰 밀어 나갔다고 설명한다. 악장의 맨 끝 Allegro vivo에서는 흔히 더하는 늦춤을 하지 않았다.

II. Andantino in modo di canzona (B-flat minor)

둘째 악장은 오보에가 시작한 노래를 다른 악기들이 이어받으며 진행된다. 첫 악장에 비해 작은 규모로, 끝에서는 처음의 선율이 바순의 여린 소리로 돌아온다. von Meck에게 보낸 편지에서 작곡가는 이 악장을
저녁의 회상과 연결했지만 , 어느 특정 사건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그 이미지보다 악보의 진행에 직접 닿는 것은 독주 악기의 교체와 중간부의 빠르기 변화다.

Honeck은 자기 녹음의 해설에서 중간 più mosso가 시작하는 126마디부터 여덟분음표를 조금 짧게 연주하도록 요청했다고 썼다. 앞부분의 긴 선율과 다른 춤의 탄력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다. 오보에에서
바순으로 이어지는 느린 악장을 줄곧 같은 무게로 유지하는 대신, 중간에 놓인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마지막의 귀환과 구별한 사례다. 또 다른 지휘자인 Mariss Jansons는 BR-KLASSIK이 2023년에 전한 인터뷰에서 이 악장의 외로움에 주목하면서 , 아름다운 선율을 지나치게 달고 감상적으로 만들면 자신이 읽는 정서적 긴장이 약해진다고 말했다. 이는 작곡가가 남긴 빠르기 지시가 아니라 Jansons의 해석이다.

III. Scherzo. Pizzicato ostinato. Allegro (F major)
셋째 악장의 악기군 배열은 작곡 당시의 편지에 이미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Tchaikovsky는 현악만 계속 피치카토로 연주하다가 트리오에서 목관만 등장하고, 뒤이어 금관만 연주하며, 끝에는 세 악기군이 짧은 악구를 주고받는다고 1877년 8월 von Meck에게 설명했다. 그가 ‘새로운 관현악 효과 ’라고 부른 것은 개별 악기의 특이한 주법 하나가 아니라, 악기군을 분리했다가 다시 대화시키는 전체 구상이었다 .

작곡가의 뒤이은 프로그램 편지는 이 악장을 잠들기 직전 떠오르는 불연속적인 이미지와 멀리 지나가는
군악에 비유했다. 지휘자 Benjamin Zander는 2018년 에세이에서 트리오 뒤 Tempo primo를 매우 빠르게 처리하면 클라리넷과 피콜로의 잘게 나뉜 음들이 흐려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관의 행진풍 부분을 사분음표
약 120–126으로 잡아 음형의 윤곽을 살리고, 군악이 멀리 있다는 편지의 이미지에도 맞추려 했다. 반대로 Honeck은 2016년 실황에서 25–42마디의 여린 피치카토에 자신이 생각한 프레이징을 더하고, 133마디의
오보에 subito forte에는 매끈하지 않은 소리를 요구했다고 부클릿에 적었다. Zander는 속도를 통해 세분 음형을, Honeck은 피치카토의 프레이징과 오보에의 발음을 통해 악기군 사이의 대조를 드러냈다.

IV. Finale. Allegro con fuoco (F major)
종악장은 관현악의 강한 도입으로 열리고, 그 뒤에 러시아어 가사의 자작나무 민요 In the Field a Birch-Tree Stood가 나타난다. Tchaikovsky는 1877년에 Mariya Mamontova의 어린이 노래 모음에 실을 같은 선율을 화성화한 적이 있다. 이 민요는 관악과 다른 악기군을 거치며 여러 번 돌아오고, 관현악의 음량과 타악기의
가세 속에서 첫 악장과는 다른 공적인 축제의 장면을 만든다. 종반부에 첫 악장의 관악 신호가 다시 나타나면서 축제의 흐름이 잠시 끊긴다. 작곡가의 편지는 바로 이 귀환을, 다른 사람들의 기쁨 속에 들어갔을 때 다시
자신을 일깨우는 운명의 이미지로 설명했다.

이 악장에 대한 실제 연주 선택은 도입부의 화려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Honeck은 153–155마디의 pianissimo를 계속 유지해 플루트 독주가 앞으로 들리도록 했다고 썼다. 또 239마디 이후 저현의 지속음을 한 옥타브 내려 색채를 바꾸고, 257마디와 277마디에서 두 단계로 빠르기를 높였다. 특히 저현의 옥타브 이동은 원래 총보의 지시가 아니라 그의 공연을 위한 변경이다. Zander는 이와 다른 각도에서 Allegro con fuoco 라는 표기를 Prestissimo처럼 몰아가는 관행에 반대했다. Zander는 기본 빠르기의 선택을 문제 삼았고, Honeck은 빠르기를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저현의 음역까지 바꾸었다.

무대와 녹음에 남은 해석

Saint Petersburg 공연에서 셋째 악장이 앙코르를 받은 일은 이 교향곡의 초기 수용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다. 작곡가의 편지는 종악장 끝에서 타인의 기쁨과 삶의 가능성을 말한다. 그러나 Jansons는 자신의 인터뷰에서 앞 악장의 신호가 되돌아온 뒤에도 인물의 내면은 바뀌지 않았다고 보았고, 외부의 환희 아래 비극을 읽었다. 이는 작곡가의 사적인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판정이 아니라, 연주자가 같은 귀환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이다.

Yevgeny Mravinsky와 Leningrad Philharmonic Orchestra가 1960년 런던에서 녹음한 교향곡 4번은 Deutsche Grammophon으로 발매됐다. MusicWeb International의 Rob Barnett은 이 역사적 스테레오
녹음의 빠른 종악장과 엄격한 통제, 그리고 둘째 ·셋째 악장에 남겨 둔 호흡을 함께 평가했다. Honeck과 Pittsburgh Symphony Orchestra의 2016년 실황은 Reference Recordings가 2020년에 발매했다. 같은 매체의 John Quinn은 좌우로 나뉜 바이올린 배치가 첫 악장의 안쪽 성부와 셋째 악장의 피치카토 교차를
분명하게 들려준다고 평했다. 그러나 Honeck이 악보에 없는 음량의 굴곡을 자주 넣은 점에는 이견을 보였고, Mravinsky의 종악장에서는 더 빠른 기본 속도와 관악 신호의 강한 귀환을 높이 샀다. 두 녹음의 대비는
속도만큼 악기 배치와 음량 조형도 교향곡의 진행을 바꾼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주요 자료

Tchaikovsky Research, “Symphony No. 4”: 자필 총보, 악장 ·편성, 초연, Jurgenson 출판 계통. Tchaikovsky Research, Letter 554, Letter 595, Letter 763: 작곡 착수, 스케르초 구상, 헌정
상대에게 준 프로그램 설명.
Tchaikovsky Research, Letter 799, Letter 800, Letter 985: Taneyev와의 논쟁, 제목면 헌정과 교정, Saint Petersburg 공연 반응.
Russian National Museum of Music 소장 자필 총보 항목.

Berliner Philharmoniker, Malte Krasting의 작품 해설, Breitkopf & Härtel 작품 정보, Tchaikovsky Research, Mamontova 노래 모음 항목.

Benjamin Zander, “Tempo in Tchaikovsky’s 4th Symphony”, Zander/Boston Philharmonic Orchestra 2018 실황.

Manfred Honeck의 Reference Recordings FR-738 음반 해설서, BR-KLASSIK, Mariss Jansons 인터뷰를 전한 해설.

MusicWeb International, Rob Barnett의 Mravinsky 비평, John Quinn의 Honeck·Mravinsky 비교.